



## 대한해운

이진방 사장 회장으로 선임



대한해운 이진방 회장

대한해운은 3월16일 제40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진방 사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또 김태풍 상무를 전무 이사로, 박상용 전용선팀장과 조운형 부정기선1팀장을 상무보에서 상무

로 각각 승진발령했다. 안계혁 기획팀장과 박찬민 해무팀장은 이사대우에서 상무보로 승진됐다.

이 회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코닝에서 근무했다. 1992년 대한해운 상무로 입사 후 부사장을 거쳐 2003년 3월 사장에 올랐다. 지난 1월부터는 한국선주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편 대한해운은 이날 앞서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매출액 1조1501억원, 영업이익 892억원, 당기순이익 1104억원 등을 포함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승진] △대표이사 회장 : 이진방 △전무이사 : 김태풍(해사본부장 겸 LNG기술팀장) △ 상무 : 박상용(전용선팀장), 조운형(부정기선1팀장)

[신임] △상무보 : 안계혁(기획팀장), 박찬민(해무팀장)

[업무위촉] △기획관리본부장 상무보 송관영(보험법무팀장 겸 안전품질관리자)

## 범주해운

지난해 매출액 4% 감소

범주해운(대표 이상복)의 2006년 매출액은 638억원으로 전년대비 4.28%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77% 감소했다.

범주해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상이익은 30억원으로 전년대비 44.14%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도 전년도 45억원에서 48% 줄어든 2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 장금상선

대산-중국항로 개설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은 3월중에 대산-중국항로를 개설했다.

장금상선은 3월11일 대산-칭다오를 시작으로 3월13일부터는 대산-상하이간 항로를 각각 주 1항차 운항에 들어갔다. 장금상선은 505TEU급 이스턴캐리어호와 360TEU급 신허스바호를 투입했다.

## C&상선

유연탄 장기운송계약 체결

(주)C&상선(대표 임갑표)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주)와 올 5월부터 오는 2012년 4월까지 5년간 총 650만톤 규모의 발전용 유연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3월15일 공시했다.

수주금액은 약 789억원 규모이며, 이로써 C&상선은 향후 5년동안 연간 130만톤의 국내 화력발전용 석탄을 호주에서 운송, 한국서부발전(주) 측에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C&상선은 3월23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사, 영업보고, 사외이사 선임 등의 의안을



처리한다. 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는 정운기 한국관세학회 부회장, 유해기 진도에프앤 대표, 이상기 C&그룹 기획총괄사장 등 3명이다.

## KSS해운

지난해 매출액 8% 증가

KSS해운(대표 윤장희)의 2006년 매출액은 840억원으로 전년대비 8.06%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41.7% 증가한 161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경상이익은 16% 줄어든 193억원, 당기순이익은 1.59% 증가한 18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 SK해운

당기순이익 1,436억원

SK해운(대표 이정화)은 2006년 매출 1조 7,755억원과 당기순이익 1,43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008억원이다.

한편, SK해운이 자회사인 스텔라해운을 합병하기로 했다. SK해운은 19일 100% 자회사인 스텔라해운을 합병한다고 공시했다.

SK해운은 지난해까지 80%의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지난 1월 스텔라해운이 이토추 상사 등 SK해운을 제외한 다른 외국계 주주들의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사들여 소각했었다. SK해운은 SK(주)가 72%의 지분을 가진 비상장 법인이다.

SK해운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가 경협자금 30억불을 일본에서 차입하면서 일본업체와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스텔라해운이라는 별도 합작법인을 세웠는데 최근 이 자금을 상

환하면서 합작 이유가 없어져 다시 합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팬스타라인닷컴

부산-오사카간 데일리서비스

팬스타라인닷컴(대표 김현겸)은 부산-오사카간 국제여객선 항로가 취항 5주년을 맞아 4월5일부터 데일리서비스를 시작한다.

팬스타라인닷컴은 이 항로에 팬스타씨니호를 추가 투입해 부산과 오사카를 매일 운항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02년 4월 이 항로에 카페리 팬스타드림호를 투입해 주 3항차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5년만이다.

팬스타라인닷컴은 규슈쪽을 운항하는 카훼리 선사와 차별화를 내세우며 일본 본토인 오사카에 여객선을 투입해 주목을 받아왔으나 주6항차 또는 매일 운항하는 다른 여객선 서비스에 비해 적은 항차수가 약점으로 지적돼왔다.

팬스타라인닷컴은 이번 팬스타씨니호의 추가 투입에 따른 데일리서비스로 이같은 약점의 보완은 물론 항공화물운송의 완전한 대체 운송수단으로 자리잡아 하주의 물류비 절감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팬스타라인닷컴은 데일리서비스와 함께 도쿄까지 연계 운송 시스템을 마련해 이 지역에 대한 급송화물 운송 서비스도 시작할 계획이다.

팬스타씨니호는 화물적재 270TEU, 승용차 100대, 여객정원 683명이며 기존의 팬스타드림호와 함께 부산과 오사카 노선을 매일 교차운항하게 된다. 출항시간은 부산 및 오사카에서 매일 오후 4시다.

## 한진해운 8년 연속 배당실시



한진해운(대표 박정원 / www.hanjin.com)은 3월16일 오전 여의도 사옥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액면가 기준 20% 현금 배당을 의결, 8년 연속 배당 실시하기로 했다.

박정원 사장을 비롯하여 회사 경영진 및 주주 등 300여명이 참석한 제 69기 주주총회에서 작년 매출액 6조513억원, 영업이익 1,491억원, 경상이익 6,238억원에 대한 재무제표를 승인했다.

이와함께 액면가 기준 20%의 현금 배당을 실시해 지난 1999년 이후 8년 연속 배당 및 최근 3년 연속 20% 배당을 실시한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박정원 사장은 “올해 약 69억5,300만달러의 매출과 2억6,800만달러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는 계획과 함께 ‘세계 초일류 종합물류기업’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은 선대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운항비용 등 물류비용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날로 다양해 지는 고객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운물류 사업 다각화를 위해 터미널 사

업, 3자 물류사업, 수리조선소 및 선박관리사업 등 신규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부채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춰 더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또 세계 초일류 종합물류회사로의 도약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경영혁신(Process Innovation)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료와 책임 경영제도 정착에 전념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한진해운 주주총회에서는 박정원 사장과 김영민 총괄부사장이 사내등기이사, 최병민 대한펄프 사장이 사외이사로, 한영재 디피 아이홀딩스 회장이 감사위원으로 각각 재선임되었으며, 최은영 양현재단 이사장과 임희택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가 신규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 현대상선

### 대륙별 영업전략회의 조기개최

현대상선(대표 노정익, hmm21.com)이 급변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미주, 구주 등 주요 대륙별 영업전략회의를 예년과 달리 조기에 개최했다.

노정익(盧政翼) 사장은 3월12일부터 13일까지 동서남아 지역본부가 위치한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지역 13개국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지역 영업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현대상선은 이번 ‘아주지역 영업전략회의’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컨테이너선시장 상황을 재점검하고 영업력 강화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꾸준히 물동량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는 중동, 인도, 호주지역 공략을 위한 항로재편 방안도 협의했다.

현대상선은 아주지역 회의에 이어서 5월에는 구주지역 영업전략회의를 갖는 등 상반기 중 미주지역 회의까지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통상 하반기 영업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6~7월 대륙별 회의를 열던 것을 올해 앞당긴 것은 최근 세계 해운시장의 변동폭이 심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키 위해서라고 현대상선 측은 밝혔다.

현대상선은 특히 올들어 6,8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3척, 4,700TEU급 3척 등 신조선을 잇따라 투입하는 등 수송능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번 대륙별 회의를 통해 외형확대에 따른 서비스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상선측은 “최근 대형 컨테이너선 투입과 이에 따른 경쟁이 가일층 치열해지고 있고, 지역별로도 컨테이너선 수요의 양상이 변화하는 등 시장 움직임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대륙별 전략회의를 통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 수립은 물론 수익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정익 사장은 이번 ‘아시아 영업전략회의’를 마친 후 아시아 13개국에 파견된 주재원 및 현지직원들과 싱가포르에 있는 부킷티마 열대원시우림을 트래킹(trekking)하며 해외 현지직원들과 스킨십을 강화하는 등 현대상선 특유의 끈끈한 기업문화를 공유하고, 일체감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단합행사도 가졌다.

노 사장은 ‘아주지역 영업전략회의’에 이어 13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세계 24개 컨테이너선사 최고경영자들이 모임인 박스클럽(BOX Club) 회의에 참석했다.

## 흥아해운

김태균 총경리 이사로 선임



흥아해운(회장 이운재)이 3월16일 오전 송파구에 소재한 송파여성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제46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46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하여 모두 원안대로 처리했다.

당일 승인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매출액은 약 5,000억원을 시현하고, 원가상승, 환율하락, 운임하락의 3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주당 35원의 배당을 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특출한 해운경력을 갖추고 특히, 중국영업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흥아선무유한공사의 김태균 총경리가 이사로 선임됐다.

정관의 경우 한-일 카페리 항로 사업자 예비지정과 종합물업 인증 취득에 따라 관련 사업내용을 정관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흥아해운측은 전했다.

총회에서 흥아해운의 이운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사업 전부분에서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각종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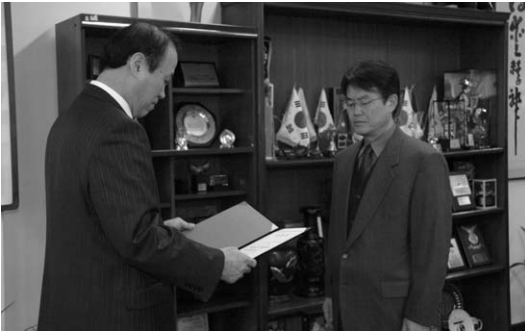
으로써, 안정적인 손익구조를 구축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특히 케미컬 탱커선과 벌크선 부문을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흥아해운은 오는 4월17일 부산과 일본 오오후나또(大船渡)를 연결하는 신항로를 개설한다.

이 서비스에는 Heung-A Jakarta를 투입하는 태평양/한국서비스를 개편하는 형태로 오오후나또에 기항하는 것으로, 동시에 시미즈기항을 중단한다. 대신 시미즈는 케이힌·나카교서비스를 통해 커버하게된다. 서비스루트는 부산(화)/오나하마(목)/오오후나또(금)/센다이(금)/부산 순이다.

##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장에 김우숙 교수 임명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신철호)는 2007년 3월1일자로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장 및 해양산업대학원장에 김우숙 교수를 임명하는 등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신임 김우숙 대학원장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공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79년에 목포해양전문대학

전임강사로 부임하여 기숙사 사감, 항해과 주임 교수, 실습과장, 승선생활관장, 도서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대외 활동으로는 한국항해학회이사, 한국항해항만학회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사발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원장 및 해양산업대학원장 김우숙 교수(해상운송시스템학부) △해상운송시스템학부장 박성현 교수 △기관시스템공학부장 신상현 교수 △해양전자통신공학부장 임장섭 교수 △해양시스템공학부장 이계희 교수 △교양과정부장 강장희 교수 △교무·기획담당관 김용진(교육행정사무관) △학생·산학협력담당관 최현중(교육행정사무관)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조교 장운재(신규임용) △해양시스템공학부 조교 김용휴(신규임용) △교양과정부 조교 윤현수(신규임용)

## 인천항만공사

국제여객터미널 신규건립 추진

인천항만공사가 2007년 한 해 동안 인천신항 착공과 국제여객터미널 신규건립 사업 기반 마련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선정했다.

서정호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은 3월14일 오전 해양수산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9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한 뒤 “인천신항 건설 사업과 국제여객터미널 신규 건립 사업을 위한 기반 마련이 최우선적인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정호 사장은 “인천항은 중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인천신항이 조기에 착공되지 않으면 환황해권 물류시장 경쟁에서 한국이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인천신항 건설 사업이 올 12월 예정대로 착공돼야 한

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여행객 100만시대에 대비한 신규 국제 여객터미널 건립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현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내항과 외항 2곳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으며, 여객들이 화물 사이에 내려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신규 터미널 건립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세한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가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IPA 2007년 9개 중점 추진 과제는 △항만수요에 대비한 외항의 본격 개발 △배후부지 확충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 △시민과 함께 하는 항만여건 조성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항만여건 변화 대응체계 구축 △글로벌 항만물류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항만마케팅 활동 강화 △항만이용자 중심의 고객서비스 제고 △책임경영 구현을 위한 혁신활동 확산 등이다.

## KL-Net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 획득

물류IT 전문기업 주식회사 케이엘넷(KL-Net, 대표 박정천)은 지난 3월12일 서울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정부에서는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이노비즈 인증을 부여하고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 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및 기술혁신성과 4개분야에 대해 이루어지며, KL-Net은 전 분야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AA등급을 받았다.

이노비즈 인증 획득으로 KL-Net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기업은행 등 13개 협약은행의 금융지원,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우대지원 등 이노비즈 기업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토대로 RFID(무선인식시스템), RTLS(실시간위치추적시스템), 위치기반시스템(LBS) 등 U-IT 분야의 신기술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한국선급

신임회장 취임 및 비전선포식



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은 3월13일 회장 취임식을 겸해 대전 본부에서 이은 해양수산부 차관, 이진방 한국선주협회장을 비롯한 외부인사 150여명과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년 세계 5대 선급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KR 2020'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오공균 회장은 취임인사에서 “이번 공개선임과정에서 한국선급이 우리 모두의 애정과 관심 속에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막중한 책임을 느꼈으며, 국제선급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계 주요선주들의 충분한 신뢰나 인지도를 확보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외부의 도전, 내부의 갈등 등 넘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이 임직원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깨워 도약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며, 한국선급을 앞으로 경쟁력 있는 최고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 해양수산부 차관은 격려사에서 “한국선급의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선급의 미래발전상을 제시하는 비전선포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며 임직원 모두가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비전과 추진력을 갖춘 오공균 회장과 하나가 되어 한국선급을 반드시 세계일류선급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선주협회 이진방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선급이 기술향상을 통해 선주와 조선소 등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선박이 바다에서 안전운항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오늘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세계 5대선급 진입을 조기에 달성할수 있기를 기원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회장 임기내 세계 5대 선급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효율성 극대화 및 신명나는 조직문화 형성 △R&D 확대 및 기술력 강화 △등록선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강화 △세계화 및 사업 다각화 등 5대 전략과제를 실행과제로 설정했다.

한국선급은 이에 따라 우선 전 임직원의 혁신적인 마인드 함양을 통해 단결과 화합하는 분위기 쇄신으로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모든 관련부처와의 협력강화와 핵심역량을 응집해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 선급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분야의 사업다각화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비전선포식에서는 임원과 직원대표 각 1명이 세계일류선급으로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문화 창달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선급비전달성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 한국조선협회

### 제9대 회장에 박규원씨 선임

한국조선협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주)한진중공업 박규원 사장을 제9대 회장에 선임했다. 신임 박규원 회장의 임기는 3월19일부터 2년간이다.

한국조선협회의 회원사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 SLS조선, 대선조선 등 한국을 대표하는 9개 조선사가 가입하고 있다.

신임 박규원 회장은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이래 30여년간 조선소에서 선박설계 및 건조에 혼신을 다해 온 정통 조선기술인으로, 1995년 동양최초의 멤브레인형 LNG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는 등 설계의 수장으로서 국내 LNG선 건조 기술 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으며, 도크의 제

약을 극복한 댐공법을 개발하는 등 신공법 개발에도 앞장서 왔다.

그의 경영방침은 기술경영, 현장경영, 글로벌 경영으로서 하루도 거르지 않는 꼼꼼한 현장점검과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임직원들을 먼저 챙기며 거칠고 힘든 조선산업현장을 인간존중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이끌고 있다. 영어에 능통하고 오디오 매니아이며, 사진, 와인 등이 취미다.

이날 선임된 박규원 회장은 “한국 조선산업은 유럽, 일본, 중국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것이니만큼 재임기간 중 세계 1위 조선국으로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함과 동시에, 양적인 세계 1등만이 아니라 질적인면에서도 확고한 기술 경쟁력 우위를 지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회원사간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조선협회는 협회 명칭을 한국조선공업협회에서 한국조선협회로 변경했다.

박규원 신임 회장은 지난 197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공학과를 졸업, 한진중공업(구 대한조선공사) 설계부에 입사하여 기본설계부장, 조선설계담당이사, 전무이사, 부사장(조선부문) 등을 거쳐 2007년 2월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조선부문)으로 취임했다.

## 한국항만물류협회

이동국 회장 취임

한국항만물류협회는 3월7일 엠배서더호텔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또 이날 정기총회에서 2007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3년간 항만물류협회를 이끌어갈 13

대 비상임 임원 회장에는 현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이 유임됐으며, 장세강 동방 사장은 협회 신임 부회장에 선출됐다.

또 지방협회장과 관련하여 △울산지방협회장에 강신률 고려항만 상무이사 △포항지방협회장에 이종철 대한통운 포항지사 지사장 △군산지방협회장에 박귀배 대한통운 군산지사 지사장 △목포지방협회장에 대한통운 목포지사 지사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원영 한진 사장 등 24명의 임원들은 유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는 항만하역장비 현대화 자금 지원, 항만하역요금 조정 사업 등은 전년에 이어 계속 추진키로 결의하고, 항만물류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항만하역장비 면세유 공급 등은 2007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 한국해운조합

2007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해운조합은 2007년 3월 13일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부응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2006년도 결산 및 잉여금(결손금)처분안을 원안결의했다.

또한 지난해 제1회 임시총회 결과 추진사항, 전국 항만별 연안화물선 전용부두 확보·연안선박 확보를 위한 선박금융 지원제도 마련 추진·연육연도사업 관련 연안여객선 피해보상 조사연구 추진 등 연안해운의 성장기반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조합법 개정 추진경과, 공제약관 일부개정사항 등의 보고사항과 함께 연안해운의 현안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특히 이 날 정기총회에서는 작년도 조합 결산 결과 수입목표 초과달성 절약지출을 통해서 당기 순이익을 실현하고 5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한 점에 대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우수한 경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함께 조합 사업 신장과 관련하여서는 해외 클레임 네트워크 확대, 비상위험준비금 300억원 적립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06년도 공제 사업 계획대비 10% 초과달성함으로써 조합 공제 사업 400억원 시대를 개막하였다는 총평을 했다.

아울러 2007년에도 조합 미션과 비전에 따라 핵심사업별 전략목표와 핵심추진과제를 명확히 하고 전반적인 추진업무계획 및 각 사업별 본·지부 목표관리제를 원활히 시행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연료유 절감 세미나 개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박찬조)은 3월8일 실습선 한반도호에서 '선박연료유 유종변경과 슬러지 발생 최소화 및 재사용과 배기가스규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유가의 고공 행진으로 말미암아 선사들은 선박운항비용의 증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도 해사고등학교 학생들과 연수원 해기사 단기 양성생들의 실습을 위한 3척의 실습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 실습선 운항에 대한 15억원의 예산 중 연료비가 6억여원을 차지하고 있어 유가 상승은 실습선 운항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연수원은 기름 값 상승으로 인하여

선박 운항에 차질과 국가 에너지절약 정책에 따라 2005년 한우리호(연수원 실습선)의 주기관 연료유를 고유황 경유(Marine gas oil)에서 가격이 저렴한 Bunker A로 변경하였고, 2006년에는 한반도호(연수원 실습선)에서도 발전기 3대의 유종을 고유황 경유에서 Bunker A로 유종 변경했다.

이러한 유종 변경으로 한우리호와 한반도호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약 3억8천만원의 연료비를 절감 할 수 있어 연수원의 운영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

연수원은 이러한 효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선박 기관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처리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이로 인한 선주와 선원들의 피해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연료유종변경기술, 슬러지의 발생 최소화 및 슬러지 미세화 기술과 슬러지 재활용 기술 및 선박기관의 배기가스 규제에 관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및 선사 등 관계자에게 기술을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세미나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부산시청, 영도구청, 수산과학원, 해양연구원 등 관련기관 및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의 학계, 한국선주협회, 선박관리업협회,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 유남조기, 오양수산 등 단체 및 선사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목포해양대학교 남정길 교수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권기생 교수, 이규환 교수, 한국선박검사기술협회 강대선 팀장, 남북수산(주) 조인천 기관장이 발표했다.

세미나에서 발표한 기술적인 내용은 우리 선주들에게 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제적 선박운항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선원들에게는 각국의 항만국통제(PSC)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해양환경보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